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22-9179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길벗단행본3팀 황지영 02-330-9829 jyhwang@gilbut.co.kr

공부가 쉬워지는 비문학 읽기의 힘

기적의 초등 신문 2027

- 올해의 특집 섹션 AI -



지은이 | 강버들, 민경원, 이유정, 채윤경, 임소연
발행일 | 2026.11.11. **분야** | 어린이(초등 3~5학년) **판형** | 185x250 **형태** | 무선 **페이지** | 264쪽
정가 | 21,000원 **ISBN** | 979-11-407-2110-8 (73300)

책 소개

현직 기자, 국어 교과서·문제집 개발자 집필
완전히 새로워진 최신 시사 토픽 100
올해의 특집 섹션 AI - 'AI가 발전하는데 왜 물이 부족해?' '정말 우리 일자리 빼앗길까?'

"좋아하는 그림책, 만화책만 읽는 아이, 괜찮을까요?"

'아이가 책을 읽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분야만 파고드는데 괜찮을까요?' '그림책이나 만화책만 읽는데 다른 글도 읽으면 좋겠어요.' '아직 국어 영역 문제집을 풀기는 이른데, 비문학 글은 골라 읽히고 싶어요.' 아이들 읽기 능력이 화두인 시대, 《기적의 초등 신문 2027》이 완전히 새로운 100가지 기사를 담고 출간됐다. 이 책은 독서 편식하는 초등학생, 어려운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초등학생을 다양한 주제의 비문학 읽기로 안내하는 책이다. 국제부·정치부·사회부·문화부·경제부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현직 기자들과 국어 교과서·문제집을 만들어 온 개발자가 함께 쓴 책으로, 올해 초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이슈를 다룬 기사 100개와 학습으로 연계되는 독후 활동까지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삶의 구석구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AI 특집 섹션을 마련, 아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들은 주요 언론사인 중앙일보·JTBC에서 활동 중인 기자들과 국어 교과서 개발자인 한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이와 함께 읽고 싶은 유익한 뉴스'를 선정해 집필했다. 기사는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AI로 나누어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주제, 교과 과정과 연계되는 주제, 세상 읽는 눈을 키워주는 지식을 담은 주제 등 다채로운 사건들을 다뤘다. 따라서 초등학생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다.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읽어낼 수 있는 분량으로 집필했다.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만 쓰지 않고 어려운 어휘를 3~4개 섞어 썼고 어휘 풀이를 별도로 수록했다.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독후 활동도 담았다. 비문학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초등 3~5학년 읽기 수준과 어휘력에 맞춘 것도 《기적의 초등 신문 2027》의 특징이다. 아이들이 글 하나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각과 지식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기사와 연계된 배경 지식도 안내했다. 하루 1장, 하루 10분으로 비문학 읽기 습관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요즘 아이들 어휘력·문해력 예전보다 떨어진 게 사실일까요?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 지문,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비문학 독해 근력, 지금부터 키워주세요

최근 수능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비문학 지문은 AI, 국제관계, 문화콘텐츠,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이슈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 이슈는 새로운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수능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다. 또한 비문학 지문의 난도도 예전과는 다르다. 아이들 어휘력, 문해력이 떨

어졌다는 이야기가 화두지만 아이들이 읽고 소화해야 할 글의 난도가 월등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7》은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는 어려운 글을 읽고 해석해야 할 요즘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기 좋은 비문학 도서다. 아이를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생생한 이슈를 다뤄서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 책을 위해 주요언론사인 중앙일보와 JTBC에서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며 벼린 간결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몸에 밴 기자 넷과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 개발자로서 교육 현장 선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 온 개발자가 힘을 합쳤다. 초등학생의 읽기 수준을 고려한 날카로운 비문학 글이다. 앞으로 급진적으로 어려워지는 글을 읽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읽던 것보다 낯설고 수준 높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기사당 3~4개씩 섞었다. 아이는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글을 읽으며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아는 세계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AI
똑똑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최신 이슈를 다뤘습니다

양질의 글도 중요하지만 흥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기 힘들 것이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7》은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주제이자 교과 과정과도 연계되는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6개 섹션에 더해, 최근 우리 사회 곳곳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AI 특집 섹션을 추가한 7개 섹션으로 구성했다. 책에 실린 각각의 기사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하루 1개씩 읽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점차 관련 분야의 지식이 확장되도록 주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 지수 한때 9,000까지!(반도체 산업 호황)’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K자 성장(자산 양극화 현상)’ ‘삼성전자 공장, 왜 멈출 뻔했을까요?(노사 갈등)’가 그 예다. 한편 ‘디지털 소외감 때문에 불안해요’ ‘도파민이 펑! 가챠에 용돈 다 썼어요’처럼 요즘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을 반영한 기사, ‘4년 만의 컴백에 세계가 들썩… BTS노믹스(관광 산업)’ ‘AI 때문에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까요?(진로 문제)’ 등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슈 등을 다뤄 흥미를 붙잡았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아는 세계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어떤 분야든 조금이라도 알아야 흥미가 생기고 꿈도 키울 수 있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7》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알려주는 책,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현재 AI 기술이 세계 곳곳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미국-이란 전쟁이 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지, 왜 달에 가려고 세계가 경쟁하는지 등을 아는 것이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AI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 사회, 우주 과학이 꿈꾸는 미래 등을 안다면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찾고 꿈을 키우는 바탕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책은 하루 1장, 하루 10분으로 비문학 독해력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책의 특별한 점

V 현직 기자들이 고르고 쓴 기사로, 정확성·균형감·간결함을 갖췄습니다.
V 국어 교과서 개발자가 초등 교과에 맞춰 다듬었습니다.
V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AI 다양한 분야의 글로 어휘력과 문해력을 길러 줍니다.
V 각 분야 필수 어휘와 개념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글도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V 다양한 배경 지식을 수록했습니다. 한 발짝 더 깊이 지식을 확장시킵니다.
V 글마다 독후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의 글

“미래 1등급 생기부로 이끄는 초등 신문”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또한 차곡차곡 쌓인 시사에 대한 감각은 수행평가·면접·논술 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신문이 어려울 수 있어, 교과 수준에 맞춘 어휘와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기적의 초등 신문》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방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매주 꾸준히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간단한 추가 자료 조사까지 해 볼 수 있다면 미래 1등급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반쯤 끝냈다고 할 수 있답니다.

_ 김수미 · 논술화랑 대표,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독서력 수업》 저자

저자 소개

강버들

JTBC 기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정보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기자가 되었는데도 인간사가 좀처럼 이해가 안 돼 십수 년째 질문하고 있다. 우주와 과학 이야기를 동경한다. 모르고 어렵고 밥벌이와 무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살길 바라며, 아이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책을 함께 본다.

민경원

중앙일보 기자.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 신문방송학, 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했다. 드넓은 세상이 궁금해 곳곳을 쏘다녔다.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묻고 듣고 쓰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됐다. 사람과 세상을 잇는 숨은 이야기를 발굴할 때 희열을 느낀다. 문화부에서 오래 일하며 음악과 영상에 파묻혀 살았다. 현재는 페어런츠팀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양육자를 위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유정

중앙일보 기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기자가 되어 사회부 법조팀, 탐사팀, 국제부를 거쳤다. 현재 외교안보부에서 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늘 믿고 있다. 바쁜 아내이자 엄마, 사랑받는 둘째 딸, 성실한 직장인. 영화관에서 팝콘과 제로콜라를 들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

채윤경

JTBC 기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기자가 되어서는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고 있다. 국밥을 제일 좋아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다. ‘모르면 읽고, 알아도 읽자. 그럼 길이 보인다’고 믿는다.

임소연

국어 교과서·문제집 개발자.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줄곧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 어린이 책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만들고자 한다.

차례

시작하며_ 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나요?
지식이 쑥쑥 자라는 5단계 활용법

Section 1. 경제
[경제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경제 001 칸쵸 벌써 세 봉지째… 내 이름 있을까?
경제 002 다꾸부터 폰꾸까지! 별다꾸 시대
경제 003 우리나라 빵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경제 004 어린이도 특허 낼 수 있나요?
경제 005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나도 빨리 타고 싶어요
경제 006 클릭 한 번 실수로 60조 원이 사라졌어요
경제 007 휴대전화 개통하려면 얼굴 인증하세요
경제 008 현금이 있어도 떡볶이를 못 사 먹어요
경제 009 편의점·문구점에 점원이 없어요!
경제 010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 지수 한때 9,000까지!
경제 011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K자 성장
경제 012 삼성전자 공장, 왜 멈출 뻔했을까요?
경제 013 반도체 호황에 더 걷힌 세금, 어떻게 쓸까?
경제 014 나만 뒤처지는 걸까? 포모 증후군
경제 015 점심값 아끼는 청년, 거지맵 써요

Section 2. 국제
[국제 기사 읽기 전 알아두기 - 나라 11]
국제 001 앱 아니라 덫? SNS 회사에 책임 묻다!
국제 002 옥스퍼드대에 한국학 센터가 생겼어요!
국제 003 우리나라 온 외국 유학생, 역대 최다
국제 004 한국 1인 GDP,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
국제 005 달콤한 해외 취업 제안, 믿어도 될까요?
국제 006 인도 청년들, '바퀴벌레당' 만들었어요
국제 007 불의 고리, 잇따라 지진 발생!
국제 008 미국-이란 전쟁, 세계가 흔들려요
국제 009 호르무즈 해협, 왜 중요할까요?
국제 010 항공권 가격, 왜 자꾸 달라질까요?
국제 011 가자 지구 구호선 나포, 외교 갈등 번져
국제 012 '우주 1년 살기'에 도전하는 중국
국제 013 마라탕·탕후루 이어 밀크티, C푸드 열풍!
국제 014 144년째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국제 015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취소해 달라고?

Section 3. 사회
[사회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사회 001 전남·광주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생!
사회 002 노동절·제헌절도 공휴일! 쉬는 날이 늘었어요
사회 003 유아차 함께 달린다! 가족 러닝 열풍
사회 004 '4세 고시' '7세 고시' 이제 그만!
사회 005 내 짝꿍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사회 006 학교에서 스마트폰 마음대로 못 써요
사회 007 웃음 뒤에 숨겨진 교사의 감정노동
사회 008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이 늘고 있어요
사회 009 중고 거래 조심! 청소년 노리는 범죄들
사회 010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
사회 011 인터넷 속 내 흑역사… 지울 수 있을까?
사회 012 도파민이 펑! 가챠에 용돈 다 썼어요
사회 013 반복되는 사고, 우리는 안전한가요?
사회 014 '응급실 뺑뺑이'는 왜 반복될까요?
사회 015 늑구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사회 016 김정은 딸 김주애가 탱크를 몬다고?

Section 4. 과학

[과학 기사 읽을 때 필수 개념 12]
과학 001 티라노 화석이 무려 675억 원!
과학 002 빨간 키위, 노란 수박… 과일의 변신!
과학 003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과학 004 수박에 랩을 씌워 보관하면 안 된다고요?
과학 005 에너지음료인데 건강에 해롭다고요?
과학 006 살 빼는 주사, 정말 꿈의 치료제일까요?
과학 007 디지털 소외감 때문에 불안해요
과학 008 스마트워치가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알죠?
과학 009 디지털 브레인 케어, 뇌 건강도 스마트하게!
과학 010 이제 코딩 안 배워도 되나요?
과학 011 스포츠 과학의 힘! 마라톤 2시간 벽 깼다
과학 012 국산 전투기 KF-21, 하늘 가르다!
과학 013 전쟁에서 배달까지, 드론의 놀라운 활약
과학 014 달 향한 우주 경쟁이 시작됐어요
과학 015 우주 쓰레기, 지구를 돌고 있어요

Section 5. 문화

[문화 기사 읽을 때 필수 상식 10]
문화 001 1600만 명 단종 앓이 일으킨 <왕과 사는 남자>
문화 002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 왜 반복될까요?
문화 003 휴대전화는 내려놓고 콘서트를 즐겨 주세요
문화 004 아이돌 7년 징크스가 사라지고 있어요
문화 005 4년 만의 컴백에 세계가 들썩… BTS노믹스
문화 006 광화문에 한글 현판도 함께 달아야 할까?

문화 007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에서 뭐 할까?
문화 008 “먹어 봤어?” 디토 소비가 낳은 간식 유행
문화 009 노래도 소설도 인기! 한로로 왜 주목받았나?
문화 010 독서량 줄어드는데 비판적 사고력은 중요해져
문화 011 신진서, 바둑 AI 카타고를 꺾었어요!
문화 012 탁구? 배드민턴? 우린 패드민턴을 해요
문화 013 처음 열린 48개국 월드컵, 미래는?
문화 014 미국 여자프로야구리그 72년 만에 새 출범!

Section 6. 환경

[환경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환경 001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어요
환경 002 수도권 쓰레기, 바로 땅에 못 묻어요
환경 003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똑똑한 소비!
환경 004 연어, 원래 주황색이 아니라고요?
환경 005 100세 은행나무, 누가 해치려 했을까?
환경 006 러브버그와 팅커벨, 익충이야 해충이야?
환경 007 기후변화가 우리 식탁도 바꿔요
환경 008 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려요
환경 009 따뜻해진 제주, 갯오동나무 첫 발견
환경 010 유럽이 오메가 열돔에 갇혔어요
환경 011 76년 만에 슈퍼 엘니뇨 온다!
환경 012 유독 덥게 느껴지는 동네가 있어요
환경 013 마른장마도 장마일까요?
환경 014 동계올림픽, 계속 볼 수 있을까요?
환경 015 기후 소송, 섬나라 학생들 큰 변화 만들다

Section 7. AI

[AI 기사 읽을 때 필수 개념 10]
AI 001 AI, 너는 누구니?
AI 002 AI와 ‘찐친’이 될 수 있을까요?
AI 003 나에게 맞는 AI 골라 쓴다
AI 004 AI 때문에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까요?
AI 005 피지컬 AI, 똑똑한 로봇이 온다!
AI 006 젠슨 황이 한국에 삼겹살 먹으러 온 까닭은?
AI 007 AI 발전 뒤에 숨은 ‘물 발자국’ 문제
AI 008 노래하는 AI, 사람 가수를 대신할까요?
AI 009 내 눈으로 본 영상도 가짜일 수 있어요!
AI 010 AI가 쓴 독후감, 내 글일까 AI 글일까?

모범 답안